

成熟産業 國際競爭力의 回復戰略論: 韓國纖維産業*

張 斗 英**

논 문 초 록 :

본 논문은 한국 섬유산업이 情報化시대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의 기본 방향과 그 대상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섬유산업에 적용가능한 신경제전략론인 '産業調節'모형을 제시한 후, 이를 기초로 1970-1995년간 韓國 纖維産業의 構造的 變遷을 분석한다. 도출된 결론은 생산 및 수출에서 그 중요성이 크고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직물류의 非가격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신경제전략의 기본틀은 새로운 기능의 경제적 체제와 이에 조응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체제의 핵심은 정보 및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柔軟的 自動化를 지향하는 것이고, 제도적 장치의 골자는 경제주체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축, 集中效果의 구현을 위한 제반제도의 정비,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생산형 노동의 사회적 관계확립 등이다.

핵심주제어 : 섬유산업, 신국제경쟁, 산업조절모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산업조직 일반(LL0)

I. 序 論

자본주의적 모든 경제주체들은 경쟁을 외면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들은 자신만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구축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자의 출현 및 퇴출, 경쟁의 기본법칙 그리고 경쟁력의 원천과 관련된 경쟁의 속성이 영구불변하지 않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자신만의 비교우위를 구축하는 데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쟁, 특히 1980년대 초반 이후 국제경쟁의 두드러진 특징은 크게 세

* 본 연구는 産學協同財團의 1996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결과이며,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본 논문의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것임을 밝혀 둔다.

** 홍남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전세계로 보급·확산되고, 중국, 아세안과 동구제국이 자본주의적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경쟁자가 다원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가격과 비가격(고품질 및 서비스)에 유연성(flexibility)이 추가되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에서 이 세 요소가 상호간에 완전하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¹⁾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함께 공산품은 물론 농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무역자유화가 요구되는 국제무역질서가 정착되고 있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특징이다. Singletary and Winchester Jr.(1996)는 여기에 최종소비재의 경우 소비자 주권의 회복(emancipated consumer)을 추가한다. 소비자기호의 변화는 시장분화(market segmentation)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상품차별화와 서비스 개별화(customization)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더욱 커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경쟁전략의 핵심대상으로 새롭게 등장한다(McHugh *et al.*, 1995; Pine, 1993). 이와 같은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국제경쟁은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를 新국제경쟁(new international competition)이라고 한다.

신국제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론은 근본적으로는 舊국제경쟁구도 아래서 고도성장의 견인차로 기능했던 주요 산업들이 신국제경쟁체제 아래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구축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위기론 속에서도 그 위기감이 가장 극명하게 지각되는 산업 중 하나가 섬유산업일 것이다. 섬유산업은 근대공장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수입대체기, 수출주도 성장기, 구조조정기 그리고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다(한국섬유기술진흥원, 1995, pp.12-19). 섬유산업은 1950년대에 미국의 지원에 의한 수입대체 및 자급체제를 구축했으며, 1960년대에는 수출전략산업으로서, 그리고 1970년대에는 수출주도산업으로서 고도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섬유산업은 1980년대 초부터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급기야 수출이 감소하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섬유산업의 급작스런 침체는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경주한 다양한 노력이 그 목적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데서 일차적으로는 기인한다. 게다가 섬유산업의 위상이

1) 유연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속도(speed)와 시간(time)이다(자세한 것은 Fawcett *et al.*, 1996; De Meyer *et al.*, 1989; Stalk Jr., 1988 등 참조).

공업구조에서 크게 떨어지면서 산업지원정책의 중요성에서 섬유산업이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변화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脫成熟命題(de-maturity thesis)론이다.²⁾ 탈성숙명제의 지지자는 성숙명제에서 기술적 안정이라는 가정 아래 수요측면만을 고려한 성숙산업의 정의를 비판한다. 안정성은 기술, 경영 및 시장차원에서 슈퍼터적 혁신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슈퍼터적 혁신은 한 방향으로만 불가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슈퍼터적 혁신은 신산업에서만 아니라 성숙(또는 전통)산업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행이 탈성숙이며, 그 핵심요인이 기술, 경영 그리고 시장 상호 간 관계의 대변화이다.

이러한 탈성숙화 경향이 섬유산업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신기술 및 경영기법의 응용이 그것이다. 유연화 경향이 뚜렷한 과학기술혁신이 생산공정에는 물론 인적 자원 및 조직에까지 응용되고, 향후 그 정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Byrne, 1995; Mody and Wheeler, 1990; 한국무역협회, 1994).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고급·다기능화되면서 섬유산업이 이제 는 생활문화산업화되었다(Cocker, 1997; 이재덕, 1997; 한국섬유산업협회·산업연구원, 1994). 여기에 섬유류의 국제교역이 완전자유화된다. 따라서 섬유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오래전 부터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Corado *et al.*, 1995; Ansal, 1991; OECD, 1983).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섬유산업이 정보화시대에서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그 전략의 기본방향 및 대상을 도출하

2) 자세한 것은 Albermathy *et al.*(1985) 참조. 한편 탈성숙명제보다 더욱 낙관적인 주장으로는 不運命題(misfortune thesis)가 있다. 이 명제는 전통산업의 경쟁력위기는 일시적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환경급변의 결과이기 때문에 위기극복은 시간의 문제라고 전제한다. 또 현시점에서 경쟁력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역량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이 명제는 주장한다. 이러한 탈성숙명제와는 대조적으로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위상 강하는 상품수명주기의 예정된 불가피한 결과(natural consequences of maturity)이며, 더 나아가 그 장래에 대해서도 비판론이 지배적인 주장이 있다. 成熟命題(maturity thesis)가 그것이다. 영국 및 일본 섬유산업이 그 전형적인 예로 지적된다(Chen *et al.*, 1996; Park and Anderson, 1989). 성숙단계에 있는 섬유산업은 시장규모의 신장은 물론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책도 섬유산업 국제경쟁력의 회복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산업구조 조정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제Ⅱ절은 성숙산업 국제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경쟁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론 모형을 제안한다. 제Ⅲ절에서는 1970-1995년간 한국 섬유산업 국제경쟁력의 변화와 그 결정요인이 산업조절모형의 맥락에서 분석된다. 그리고 제Ⅳ절은 제Ⅲ절의 분석결과를 제Ⅱ절의 이론모형과 연계하여 한국 섬유산업 국제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신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제Ⅳ절에서 제시한 전략의 한계와 이에 따른 과제가 다뤄진다.

Ⅱ. 成熟産業의 新競爭戰略模型

기존 경쟁전략이론들은 제조방법의 개선(manufacturing improv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business network)를 각각 성숙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경쟁우위의 핵심결정요인으로 인식하거나 그것을 강조한다.³⁾ 물론 BPR은 제조방법의 개선을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전자의 결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효과를 더욱 제고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경쟁전략은 시장이 안정적인 경우에 경쟁력 방어차원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정보가 어느 생산요소보다 중요시되고 불확실성이 큰 신국제경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쟁전략은 한계를 드러낸다. 이들이 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강구될 경우 더욱 그렇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경쟁전략이 민첩·지능생산(agile & intelligent production: AIP)이다(Sinletary and Winchester, Jr., 1996). AIP는 유연성을 지향하는 신제조기술과 BPR, 비즈니스 네트워크, 신속한 대응, 상품 및 서비스의 개별화 등과 같은 신경영기법을 통합하는 기술 및 상품관계의 혁신을 지향한다.

이러한 AIP도 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조건일 뿐이다. AIP는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의 기회의 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섬유산업은 중소기업 중심, 경쟁시장, 저위의 수직통합, 상품의 다양성, 상품주기의 단축, 공정기술의 높은 외부의존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섬유산업의 경우 생산(기술 및 상품)관계의 혁신은 물론 생산외적 관계의 조직화가 필요하게

3) 제조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Hayes and Pisano(1995), Huge and Anderson(1988)를, BPR에 대해서는 Cross *et al.*(1994)를,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Mchugh *et al.*(1995) 등 참조.

된다. 생산외적 관계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은 기업간은 물론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사회적 정체성의 확립, 기업의 핵심역량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역할, 섬유산업은 국민경제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성장전략(또는 산업구조조정)은 관련산업의 제약이자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섬유산업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성숙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또는 회복을 위한 전략모형의 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접근방법이 Régulation (조절)이론이다.⁴⁾ Régulation이론은 축적체제(accumulation regime)와 Régulation 양식이라는 두 개념과 양자간의 상충·조응관계로부터 국민경제의 위기와 발전을 분석하는 경제성장이론이다.⁵⁾ 이 이론은 내생적으로 형성되는 축적체제가 상품가치의 창출 및 실현을 위한 기술 및 분배조건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관련 제도가 동태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Régulation이론은 정보화시대에서 생산 및 생산외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성숙산업 국제경쟁력의 회복전략에 대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문제는 Régulation이론은 분석의 기본단위가 매조단위(산업) 또는 마이크로 단위(기업)에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Régulation이론이 기본적으로 매크로 경제단위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크로 경제단위와 매조 또는 마이크로 경제단위 간의 연결개념이 필요하다. 그 개념이 Bartoli and Boulet(1990)와 Boyer(1990)가 Régulation이론의 확장으로서 제시한 部門調節(Régulation sectorielle)이다. 이 부문조절이론은 기능의 경제적체제(régime économique de fonctionnement)와 제도적 장치(dispositifs institutionnels) 간의

4) Boyer에 따르면 Régulation은 'regulation'으로 영역될 수 없고 'socio-economic tuning'으로 번역된다(Boyer, 1988). 따라서 Régulation은 '의도적이고 아주 정교한 사회·경제적 조정' 정도로 한역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Régulation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미 번역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조절'을 사용한다.

5) 축적체제는 생산조직 및 생산수단과 근로자 간 관계, 그리고 경영원칙이 도출될 수 있는 여

조용·상충 여부로부터 산업성장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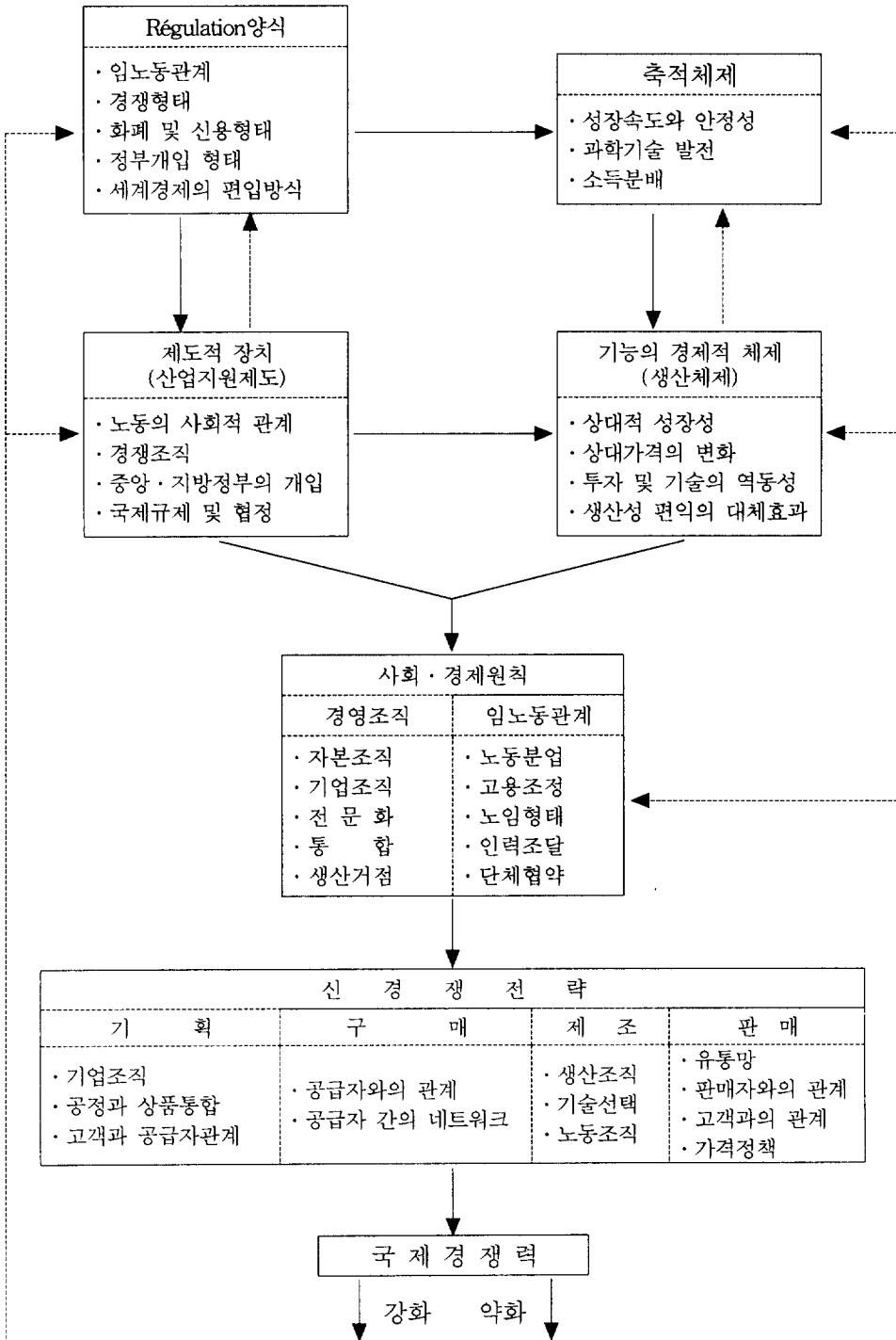
기능의 경제적 체제는 상대적 성장성, 상대가격의 추이, 투자 및 기술의 역동성, 생산성 편익의 대체효과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는 관련 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기반으로서 기능한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요구되는 축적체제의 특성은 산업차원에서 규정되는 기능의 경제적 체제에 대한 제약조건이자 기회의 창으로서 작용한다. 역으로 후자는 전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영향은 축적체제의 성숙도 및 허약성, 그리고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한편 기능의 경제적 체제 그 자체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기능의 경제적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비교우위가 항상 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시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능의 경제적 체제로부터 형성되는 비교우위가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적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제도적 장치는 생산 및 생산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공급사슬체계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적 장치가 기능의 경제적 체제변화에 조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마련된다면, 이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경직적으로 운용된

다면, 이는 오히려 국제경쟁력 강화의 애로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양자 간 상충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기능의 경제적 체제는 내생적으로 동태적 변모를 하는 반면, 제도적 장치는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일반적으로 노동의 사회적 관계, 경쟁조직, 공공기관 및 단체역할, 국제적 규제 및 협정 등을 포함한다. 제도적 장치 또한 매크로 차원의 Régulation양식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며, 역으로 제도적 장치가 그 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에 따라 Régulation양식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의 경제적 체제와 제도적 장치라는 여건하에서 기업의 경쟁전략이 도출된다. 사회·경제적 원칙이 그것이다. 이 사회·경제적 원칙은 한편으로는 경영조직의 선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임노동관계의 선택으로 축약된다. 경영조직은 자본구조, 기업구조, 특화, 통합, 입지 등과 임노동관계는 노동의 사회적 분업, 노동의 유연성, 단체협약, 임금형태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선택은 나아가 기업의 4대 기능인 기획, 구매, 제조 그리고 판매의 장치 및 실행을 결정한다.

〈그림 1〉 산업조절모형



결국 국민경제 차원에서 요구되는 축적체제 및 조절양식이라는 여건하에서 산업차원에서 규정되는 기능의 경제적 체제 및 제도적 장치, 그리고 관련 기업 차원에 적용되도록 도출된 사회·경제적 원칙 간의 유기적 조화가 일차적으로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이차적으로는 그 결과가 3단계의 기술·조직적 혁신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림 1〉 참조). 그 결과는 다시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순환은 생산체제와 산업지원제도 간 조응·상충관계와 다른 차원의 대응 정도에 따라 선순환이 되기도 하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거시조절, 부문조절과 기업전략을 연결하는 신국제경쟁전략론을 '산업조절모형'이라 한다.

Ⅲ. 韓國纖維産業 國際競爭力의 變化와 그 決定要因

본절은 1970-1995년 간의 한국 섬유산업 국제경쟁력의 구조적 변화를 국제경쟁력의 국제비교, 그리고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의 추이를 통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이 기능의 경제적 체제와 제도적 장치라는 산업조절모형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된다.

1. 국제경쟁력의 구조변화

한국 섬유산업은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구조변화 속에서도 세계시장에서 1995년 현재 특히 섬유사 및 직물류의 비교우위를 견지하고 있다. 〈표 1〉에서 국제경쟁력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섬유산업 전체는 물론 그 세분류(2자리수품목, 3자리수품목 모두)상으로도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지수가 '100'보다 크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과정에서 견인차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은 時·空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우선 섬유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은 1970년대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그 이후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1970년에 600이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98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에 338로 크게 감소한 후, 1995년에 259로 떨어졌다. 둘째 1970년대에는 섬유사 및 직물류의 국제경쟁력이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국제경쟁력에 크게 못미쳤으나, 최근에는 그 반대현상이 발생하였다. 섬유

〈표 1〉 섬유산업 국제경쟁력의 국제비교

| | 섬유산업 | | | | 섬유사와 직물류 | | | | 의류와 기타 섬유제품 | | | |
|------|------|------|------|------|----------|------|------|------|-------------|-------|------|------|
| | 1970 | 1980 | 1990 | 1995 | 1970 | 1980 | 1990 | 1995 | 1970 | 1980 | 1990 | 1995 |
| 한 국 | 600 | 617 | 338 | 259 | 257 | 454 | 290 | 365 | 1,279 | 842 | 388 | 160 |
| 홍 콩 | 650 | 715 | 448 | 354 | 276 | 323 | 310 | 273 | 1,390 | 1,260 | 590 | 428 |
| 일 본 | 192 | 090 | 35 | 30 | 232 | 141 | 63 | 56 | 120 | 19 | 6 | 5 |
| 이탈리아 | 224 | 234 | 195 | 194 | 169 | 192 | 173 | 188 | 332 | 293 | 218 | 199 |
| 독 일 | 94 | 100 | 78 | 71 | 110 | 118 | 102 | 98 | 63 | 75 | 55 | 47 |
| 태 국 | 23 | 192 | 254 | 205 | 31 | 182 | 125 | 98 | 6 | 205 | 385 | 303 |

주: 현시비교우위(RCA)지수 = $\frac{i\text{國 } j\text{상품의 수출액}/i\text{國의 총수출액}}{\text{세계 } j\text{상품의 수출액}/\text{세계 총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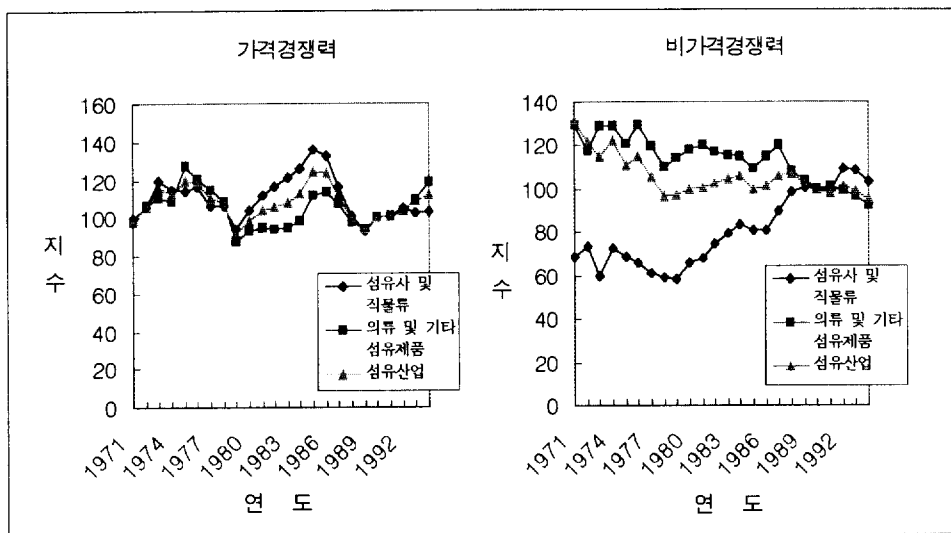
자료: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또는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각 연도.

사 및 직물류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970년에 257로서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1/5수준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 365로서 후자의 160보다 2배이상 높아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초반 한국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은 1970년대에 비슷한 수준의 홍콩보다는 약화되는, 그리고 1970년대에 한국보다 크게 뒤진 이탈리아와 태국과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분류상으로 섬유사 및 직물류의 국제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나,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국제경쟁력은 홍콩과 태국은 물론 이탈리아에도 못미친다.

이와 같은 한국 섬유산업 국제경쟁력의 추이를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으로 분해하여 관찰한 것이 〈그림 2〉이다.⁶⁾ 한국 섬유산업의 가격경쟁력은 1971-1994년 간에 약 10년 주기로 변동해 왔고, 업종별 가격경쟁력도 섬유산업 전

6) 가격경쟁력은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로 측정된다. 실질환율은 $P_f E / P_h$ (단, P_f : 외국 산상품의 가격, P_h : 국산상품의 가격, E : 달러에 대한 원의 환율)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가격경쟁력지수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국산 섬유제품의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이며, 외국산 섬유제품의 가격은 기초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관련 제품의 주요 수출국 중 섬유사 및 직물류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과 대만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그리고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경우 독일, 영국, 대만과 중국(1978년 이후만)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1980년과 1994년 수출액 평균을 가중치로 평균한 것이다. 한편 비가격경쟁력은 고부가가치화 정도로 측정된다. 고부가가치화는 수출물가(달러기준)에 대한 수출단가의 비율로 측정될 수 있다. 수출물가지수는 수출계약시점에서 일정한 품질규격품목에 대한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나타내는 반면, 수출단가지수는 통관시점에서 모든 수출품목에 대한 평균단가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된 고부가가치화지수는 기준연도에 대해 품질향상과 기술수준의 변화를 추세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가격경쟁력의 대용변수로서 사용가능할 것이다.

〈그림 2〉 한국 섬유산업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 추이: 1971-1994



체와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섬유산업의 가격경쟁력은 1975년에 정점에 이른 후, 약화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말엽에 저점을 보였다. 그 후 가격경쟁력은 회복되어 1985년에 사상 최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은 다시 약화되어 1980년대 말엽에 저점에 이른 후, 1990년대에 들어와 다시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회복되는 정도는 섬유사 및 직물류와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 간에 상이하다. 전자의 가격경쟁력은 아직 1980년대 수준에 크게 못미친 반면, 후자의 가격경쟁력은 1980년대 수준을 웃돌 정도로 회복되었다.

한편 비가격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섬유산업 전체의 비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업종별 비가격경쟁력은 대조

적인 추세를 보였다. 1970년대에 계속해서 약화된 섬유산업 전체의 비가격경쟁력은 80년대 내내 완만하고 불안정하게 회복되다가 1990년대 초부터 다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업종별 비가격경쟁력의 추이는 상이하다. 섬유사 및 직물류의 비가격경쟁력은 1970년대에 불안정한 변동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반면,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은 완만하게 약화되어 1990년대 중반에는 사상 최저에 이르렀다.

이러한 섬유산업의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의 결정요인과 세계GDP가 섬유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⁷⁾ 섬유산업 전체의 경우

7) 종속변수는 수출증가율(TEXP: 섬유사와 직물류, CEXP: 의류와 기타 섬유제품, TCEXP:

가격경쟁력 및 소득의 결정요인들이 非가격경쟁력관련 요인보다는 섬유수출에 큰 영향을 크게 미쳤다. 업종별 가격경쟁력 및 소득 관련변수의 영향은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보다는 섬유사 및 직물류에서 크고, 의류와 기타 섬유제품 수출은 외국물가보다는 해외수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

(1) 기능의 경제적 체제

기능의 경제적 체제는 1971-1995년 간에 전반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첫째, 섬유산업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에 약 9.0%를 기록한 이후 1980-1995년 간에 7.8%, 그리고 1996년에는 7.1%로 둔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섬유산업은 1980년대 초까지 중추적 성장엔진으로서 기능하였다. <표 2>에서 섬유산업은 1970년에 제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에서 각각 18.7%와 18.0%를 차지했고, 섬유산업의 수출은 무려 제조업 총수출의 40%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제조업 총고용의 24.2%가 섬유산업에서 창출되었다.

섬유산업 전체)로, 그리고 설명변수는 미달리기준 수출물가인상률(TEPI: 섬유사와 직물류, CEPI: 의류와 기타 섬유제품, TCEPI: 섬유산업 전체), 외국생산자물가인상률(TFPPI: 섬유사와 직물류, CFPPI: 의류와 기타 섬유제품, TCFPPI: 섬유산업 전체; 수출증가율은 <표 1>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했고, 외국생산자물가인상률은註 6) 참조)과 세계경제성장률(WGDPR)로 설계한 다중회귀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EXP = 21.640 + 1.923TEPI + 2.528TFPPI + 3.711WGDPR, R^2 = 0.726, D - W = 2.337$$

(1.745) (3.062) (2.982) (0.956)

$$CEXP = -7.070 + 1.454CEPI + 0.665 CFPPI + 4.209 WGDPR, R^2 = 0.602, D - W = 1.379$$

(-1.639) (1.981) (0.494) (2.152)

$$TCEXP = 1.926 + 1.285TCEPI + 1.894TCFPPI + 0.466WGDPR, R^2 = 0.779, D - W = 1.524$$

(1.156) (2.327) (2.031) (0.193)

주: ()는 t 값임

자료: 1) 한국은행

2) 日本銀行統計局, 『外國經濟統計年報』, 1982, 1994.

3)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6.

4)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 연도.

그런데 한국 수출과 수출물가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예상과는 다르다. 그러나 회귀계수의 부호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료의 취득난에 따른 자료생성의 한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외국물가의 대표성 문제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예상 밖 회귀계수의 부호는 한국 섬유제품의 최근 가격인상이 급액기준 수출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분석기간 중 최근 기간을 제외한 과거 대부분의 기간에 한국 섬유제품의 가격이 선진국의 것에 비하여 매우 낮은 데다 후발국과의 가격경쟁이 극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섬유산업은 1960년대에 제조업의 최대 수출산업이자 고용창출산업이었고, 1970년 대에도 공업구조에서 높은 위상을 여전히 견지하였다. 이는 후방연관산업인 석유 화학공업의 발전에 힘입어 자본집약적인 화섬공업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섬유산업의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5년 제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에 대한 섬유산업의 비율은 1970년보다 각각 3.5% 포인트와 5.7% 포인트 하락한 15.2%와 12.3%이었다. 같은 기간에 섬유산업의 수출 및 고용도 각각 14.9% 포인트와 4.2% 포인트씩 줄었다.

섬유산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격하된 것은 대내·외여건의 악화에서 기인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이 자국의 섬유산업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섬유제품을 신흥공업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한편, 후발개도국은 저임금을 기초로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전략의 기초가 경공업중심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섬유산업은 1980년대에 들어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섬유

〈표 2〉 섬유산업의 위상변화: 1970-1995

| | | 1970 | 1980 | 1985 | 1995 |
|-----------------|---------|---------|----------|----------|---------|
| 수출 (억 달러) | I. 섬유산업 | 3.3 | 50.1 | 70.4 | 184.4 |
| | II. 제조업 | 8.4 | 161.5 | 288.8 | 1,189.5 |
| | I/II(%) | 39.3 | 31.0 | 24.4 | 15.5 |
| 부가가치 (10억 원) | I. 섬유산업 | 98.9 | 1,675 | 3,016 | 14,072 |
| | II. 제조업 | 549.8 | 10,706 | 24,530 | 159,448 |
| | I/II(%) | 18.0 | 15.6 | 12.3 | 9.1 |
| 고용 (천 명) | I. 섬유산업 | 350 | 732 | 726 | 480 |
| | II. 제조업 | 1,445 | 2,972 | 3,630 | 4,773 |
| | I/II(%) | 24.2 | 24.6 | 20.0 | 10.1 |
| 생산 (10억 원) | I. 섬유산업 | 250.2 | 6,495.4 | 11,723.0 | 30,578 |
| | II. 제조업 | 1,334.5 | 36,279.1 | 77,032.9 | 364,821 |
| | I/II(%) | 18.7 | 17.9 | 15.2 | 8.4 |

자료: 1)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2)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표 3〉 생산자가격 및 생산능력 지수의 추이: 섬유산업과 제조업

| | 생 산 자 가 격 지 수 | | | 생 산 능 력 지 수 | | |
|------|---------------|---------|-------|-------------|---------|------|
| | 섬유산업(I) | 공산품(II) | I /II | 섬유산업(I) | 제조업(II) | I/II |
| 1971 | 23.0 | 17.6 | 1.31 | 67.3 | 12.5 | 5.38 |
| 1980 | 68.4 | 77.7 | 0.88 | 97.7 | 46.4 | 2.11 |
| 1990 | 100.0 | 100.0 | 1.00 | 100.0 | 100.0 | 1.00 |
| 1995 | 120.8 | 114.5 | 1.06 | 66.0 | 129.6 | 0.51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산업은 급격한 임금인상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그 위상이 공업구조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1995년 제조업생산 및 부가가치에 대한 섬유산업의 비율은 10.0% 미만으로 떨어졌고, 수출과 고용에서 섬유산업비율은 각각 15.5%와 10.1%에 불과했다. 이렇듯 1970-1995년 간에 섬유산업이 수출, 부가가치, 고용 그리고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약 2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

둘째, 섬유산업의 상대가격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섬유산업의 생산자가격은 1980년대까지는 다른 공산품의 생산자가격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그 반대현상이 발생하였다. 〈표 3〉에서 공산품 생산자가격지수에 대한 섬유산업 생산자가격지수의 비는 1971년에 1.31에서 1980년에 0.88로 떨어졌다가, 1995년에 1.06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생산비의 증가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흡수되지 못함으로써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섬유산업의 기술력이 열위하고,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표 4〉에서 섬유산업의 기술수준이 후발개도국에 비해 다소 앞서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진다(한국산업은행, 1995, p.346). 기술수준의 열위경향은 특히 염색과 제직에서 두드러진다. 섬유산업 중에서도 생산경험이 가장 많고 오래 된 의류산업의 기술마저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6). 특히 CAM개발, 로봇응용기술과 컴퓨터응용기술 등은 미개발단계로서 선진국의 20-30% 수준에 지나지 않는 데다가 노후생산시설이 많다. 그리고 품질수준은 중국, 동유럽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후발개도국보다 양호하지만, 원·부자재 결함 및 불량과 봉제의 결함 등으로 인해 EU와 일본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진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4; 한국봉제과학연구소, 1996). 또한 섬유산업의 설비투자도 제조업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제조업에 대한 섬유산업 설비투자의 비율

〈표 4〉 임금, 노동생산성과 노임소득 분배율비교: 섬유산업과 제조업 (단위: 천 원/월, %)

| | 섬유산업/제조업평균 | | 노 임 분 배 율 | | |
|------|------------|-------|-----------|---------|--------|
| | 임 금 | 노동생산성 | 섬유산업(I) | 제조업(II) | I - II |
| 1970 | 73.3 | 61.6 | 47.4 | 39.9 | 7.5 |
| 1980 | 77.6 | 71.3 | 54.4 | 51.0 | 3.4 |
| 1990 | 74.2 | 71.2 | 60.7 | 52.3 | 8.4 |
| 1995 | 74.1 | 59.0 | 63.0 | 53.1 | 9.9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이 1970년에 26.9%에서 1985년에 12.9%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5년에는 9.0%에 불과하다. 그 결과 섬유산업의 생산력이 1990년대에 들어와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저하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섬유산업의 생산능력은 다른 제조업보다 훨씬 우세했으나, 1990년을 전후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제조업의 생산능력은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섬유산업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3〉에서 1971년에 무려 5.38이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에 대한 섬유산업 생산능력지수의 비는 1980년에 2.11로 크게 떨어진 후, 1995년에는 0.51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섬유산업의 低임금-低생산성-高노임소득분배율 체계가 성장잠재력의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섬유산업은 저임금을 기초로 물량위주 수출을 통하여 성장해 왔다. 그 격차가 다소 감소했지만, 섬유산업의 임금수준은 선진국의 것에 비하여 여전히 매우 낮다.⁸⁾ 〈표 4〉에서 제조업평균에 대한 섬유산업의 임금비율은 약 75% 수준에서 매우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임금수준은 한국 제조업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섬유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의 제조업평균에 대한 격차는 임금격차보다 더 크고, 그 차이는 1995년에 이르러 더욱 커졌다. 그 결과 섬유산업의 노임소득분배율은 제조업 평균을 상회한다.

(2) 제도적 장치

제도적 장치는 전반적으로 기능의 경제적 체제의 역동성이 강화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강구되지 않았다(한국섬유기술진흥원, 1995; 홍문신·최장호, 1986). 우

8) 달러기준 미국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한국 임금(100)의 비율은 1973년에 1,090.0에서 1984년에 455.0으로 크게 낮아진 후, 1988년에 411.4로 더 낮아졌다. 1996년 면사의 중량당 임금은 287.5배, 그리고 면직물과 편직물의 길이당 임금은 각각 237.5배와 240.0배였다(자세한 것은 김영봉, 1979, p.42; 김정수·한진수, 1990 p.140; ITMF, 1996 등 참조).

선, 한국 섬유산업은 산업화의 초석으로서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노동계급의 분화에 크게 기여했고, 섬유산업 노사관계는 개별형에서 경쟁형을 거쳐 협력형으로 이행기에 있다.⁹⁾ 이러한 섬유산업의 사회적 관계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주는 기능의 경제적 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임금상승, 나아가 노임소득분배율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둘째, 중앙정부의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이 특정-직접형에서 개방-간접형으로 전환되었다. 섬유산업에 대한 체계적·조직적인 정부의 지원은 경제개발계획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1962년부터 시작되었다.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금융, 조세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들이 그것이다. 특히 1964년에는 「섬유산업 시설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고 제품의 고급화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부문의 설비과잉 및 부문 간 설비불균형이 발생했다. 그래서 정부는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9년에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도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섬유산업은 만성적 인력난과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과거처럼 보조금성격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데 있다. 후술하는 섬유산업 무역이 WTO체제로 편입됨으로써 금융·세제지원은 금지보조금이나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섬유산업 관련 국제제도 및 협정이 직접적 지원제도의 강구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외시장의 개척에는 UR섬유협정의 타결로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다(김정수·한진수, 1990). 그 동안 섬유류교역에 관한 협정(multi-fibre arrangements: MFA)에 의하여 자유무역화의 예외로 남아 있었던 섬유산업의 교역은 향후 일정 기간의 과도기(UR타결 이후 10년)를 거쳐 2005년부터 완전자유화된다. UR섬유협정의 타결 이전에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섬유산업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을 강력하게 규제했으나, 섬유산업도 쿼터제도의 단계적 철폐, 비다자 간 섬유협정규제의 폐지 등을 통하여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MFA 아래서 이루어진 국제규제는 한국 섬유산업의 정상적 성장을 억제하고 섬유산업의 구조를 왜곡시켰을 수 있다.

9) 이는 한국 노사관계의 전반적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는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이규창(1994) 참조.

또한 이런 국제규제는 기존 시장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장치로도 기능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생산체제에 대한 노력을 등한시하게 하는 유인으로서 작용했을 수 있다. 한국의 섬유수출이 최근에 선진국의 쿼터도 소진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그 소진율이 매년 낮아진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¹⁰⁾

마지막으로, 한국 섬유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중심이고, 그것도 하도급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기업조직을 갖고 있다. 섬유산업체는 1970-1980년 간에 6,393개에서 7,682개로 완만하게 증가한 후 1995년에 무려 1만 7,758개로 크게 늘어났다. 섬유산업체 중 섬유사 및 직물류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 30.4%에서 1980년에 38.2%로 늘어나다가 1995년에 29.4%로 크게 줄었다. 섬유산업의 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그 정도는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에서 다소 심하다. 1995년 현재 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체의 비율은 섬유산업 전체로는 88.6%, 섬유사 및 직물류에서는 82.2%, 그리고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경우 91.2%이다. 그런데 영세업체의 비율이 1970-1995년 간에 섬유산업 전체와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경우 대체로 안정적이나, 섬유사 및 직물류의 경우 1970년의 69.8%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도 대부분이 하도급업체이다.¹¹⁾

이렇듯 한국 섬유산업에서는 기능의 경제적 체제가 기술개발 및 투자의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장치마저 기능의 경제적 체제의 약화를 보완해 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섬유산업은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위상이 공업구조에서 강하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IV. 韓國纖維産業의 新國際競爭戰略

본절은 한국 섬유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세계 섬유산업의 현재 및 미래를 검토함으로써 신국제경쟁전략의 대상을 도출하고, 제III절에서 분석한 국제경쟁력회복의 애로요인과 산업조절모형의 정책변수를 기초로 하여 국제경쟁력 회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10) 미국 쿼터의 소진율은 1993년에 76.2%, 1994년에 76.8%, 1995년에 68.3%, 그리고 1996년에 67.5%이었다. 한편 EC쿼터의 소진율은 1993년에 38.3%, 1994년에 33.3%, 1995년 30.1%, 그리고 1996년에 28.2%이다.

11) 의류의 경우 하도급공장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995년 현재 하도급공장의 비율은 1990년 74.8%보다 높은 83.7%이다(한국의류산업협회, 1995).

1. 섬유산업 구조의 변천

한국 섬유산업은 1975-1995년 간에 국내생산 및 무역구조와 가공단계별 수급구조 및 자급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선, 國內生産爲主의 供給과 內需爲主 需要의 구조적 특성 아래 업종별 수출입구조는 섬유원료·직물수입-완제품수출형으로부터 섬유원료·직물수출-완제품수입 증가형으로 전환되었다.¹²⁾ 〈표 5〉에서 1975년에는 국내생산에서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비율이 29.9%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6.8%의 섬유원료였다. 이와는 반대로 1995년에는 섬유원료가 무려 49.5%로서 으뜸이고, 그 다음이 20.4%의 완제품이었다. 수입구조는 1975년에는 대부분이 섬유원료(84.%)와 직물(13.6%)이었으나, 1995년에는 섬유원료가 크게 줄면서 섬유사와 완제품의 수입이 각각 15.8%와 5.4%에 이르렀다. 수출에서는 1975년에는 완제품과 직물이 각각 42.3%와 33.4%로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으나, 1995년에는 직물과 섬유원료가 각각 46.8%와 34.4%로서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특히 직물의 수급구조는 섬유산업 전체의 수급구조와 가장 유사하고 가장 안정적이다. 또한 직물의 총공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한 비율이 약 85-90%의 수준이고, 1995년 총수요에 대한 수출비율은 섬유원료, 섬유사, 직물과 완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41.9%이었다. 섬유원료의 경우 국내생산의 비율은 1975년에 가장 낮은 58.3%에서 1995년에는 74.0%로, 그리고 수출비율은 같은 기간에 1975년 4.9%에서 23.7% 포인트 증가하였다.

둘째, 가공단계별 수급구조는 가공단계별로 유사해지는 이른바 ‘準收斂’화가 발생하였다. 총공급의 경우 섬유원료와 완제품 간 국내생산비율의 차가 1975년에 무려 41.5%였으나, 1995년에는 19.9%로 크게 줄었다. 수요구조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된다. 최근에 이를수록 가공도가 낮은 섬유원료의 수출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완제품의 수출비율은 감소한 것이다.

셋째, 섬유산업의 자급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1995년 현재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¹³⁾ 1975년에 107%이던 섬유산업

12) 한국 섬유산업의 수급구조는 수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와는 배치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수출수요는 가공단계별 수출을 모두 집계하면서도 내수는 최종수요만을 집계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수급구조관련통계를 그 대로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 내수에 중간수요를 포함시킨 데서 기인한다.

13) 자급도는 내수물량에 대한 국내생산량의 비율로 정의된다. 1995년 현재 미국의 자급도는 74%, EU는 61%, 그리고 일본은 62% 등을 보임으로써 선진국의 평균자급도는 65%이고, 개발도상국의 자급도는 98%이다(Cocker, 1997, pp.70-71 참조).

전체의 자급도는 1985년에 117%로 증가한 이후에도 계속 늘어남으로써 1995년에는 129%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공단계별 자급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직물류의 자급도는 1975년에 150%에서 다소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무려 245%에 이르렀다. 그리고 섬유원료와 섬유사의 자급도는 상호 역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75년에 64%이던 섬유원료의 자급도는 팔복할 만하게 증가하여 106%에 이른 반면, 생산 및 수출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섬유사의 자급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짐으로써(1975년: 120%→1995년: 83%) 1995년에 유일하게 100% 미만이었다. 한편 선진국의 자급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개도국의 자급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¹⁴⁾

이러한 한국 섬유산업의 현재와 세계섬유산업의 자급도를 고려하면 직물류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비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표 5〉 섬유산업의 가공단계별 수급구조 및 구성비: 1975-1995

(단위: %)

| | | 1975 | | | | 1985 | | | | 1995 | | | |
|------------------|-------|-------|-------|-------|-------|-------|-------|-------|-------|-------|-------|-------|-------|
| | | 총공급 | | 총 수요 | | 총 공급 | | 총 수요 | | 총 공급 | | 총 수요 | |
| | | 생산 | 수입 | 내수 | 수출 | 생산 | 수입 | 내수 | 수출 | 생산 | 수입 | 내수 | 수출 |
| 수 급 구 조 | 전 체 | 81.5 | 18.5 | 77.5 | 22.5 | 83.3 | 16.7 | 73.0 | 27.0 | 80.1 | 19.9 | 63.4 | 36.6 |
| | 섬유원료 | 58.3 | 41.7 | 95.1 | 4.9 | 64.3 | 35.7 | 89.7 | 10.3 | 74.0 | 26.0 | 71.4 | 28.6 |
| | 섬 유 사 | 99.0 | 1.0 | 82.6 | 17.4 | 95.5 | 4.5 | 80.4 | 19.6 | 70.8 | 29.2 | 86.9 | 13.1 |
| | 직 물 | 85.3 | 14.7 | 56.7 | 43.3 | 92.3 | 7.7 | 41.3 | 58.7 | 84.5 | 15.5 | 58.1 | 41.9 |
| | 완 제 품 | 99.8 | 0.2 | 61.7 | 38.3 | 99.9 | 0.1 | 59.1 | 40.9 | 93.9 | 6.1 | 70.3 | 29.7 |
| 구 성 비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섬유원료 | 26.8 | 84.9 | 44.8 | 7.9 | 31.0 | 85.8 | 50.9 | 15.8 | 40.7 | 57.4 | 49.5 | 34.4 |
| | 섬 유 사 | 25.4 | 1.1 | 22.6 | 16.4 | 22.8 | 5.3 | 22.7 | 15.0 | 9.5 | 15.8 | 14.9 | 3.9 |
| | 직 물 | 17.9 | 13.6 | 12.8 | 33.4 | 21.1 | 8.8 | 10.0 | 38.4 | 29.1 | 21.4 | 15.2 | 46.8 |
| | 완 제 품 | 29.9 | 0.3 | 19.9 | 42.3 | 25.1 | 0.1 | 16.4 | 30.9 | 20.7 | 5.4 | 20.4 | 14.9 |

주: 물량기준임.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산업의 물동분석』, 각 연도.

14) 선진국의 평균 자급도는 1995년 현재 65%이며 2005년에 6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자급도 모두 미국은 74%→70%, EU는 61%→54%, 그리고 일본은 62%→58%로 각각 떨어진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자급도는 1995년에 98%에서 2005년에는 크게 향상되어 1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Cocker, 1997, pp.70-71 참조).

2. 신국제경쟁전략의 기본방향

한국 섬유산업은 국제경쟁력의 구조적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이재덕, 1997; 한국섬유산업연합회·산업연구원, 1994; 김준현 외, 1993)에 의하면 이러한 구조조정은 국제경쟁력의 방어 또는 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주요 정책이 사업다각화, 직원감축을 위한 기계화,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에 치중하거나 많은 대응책이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 경쟁전략의 부분적 개선(또는 조정)이나 다양한 대책의 병렬식 나열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경쟁전략이 요구된다. 신국제경쟁체제 아래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선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능의 경제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술혁신은 상품제조에서는 물론 정보와 통신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속도, 효율성과 유연성에 영향을 준다. 게다가 기술혁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것도 다방면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술요인은 경쟁우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섬유산업은 노후설비가 많고 자동화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 의류 생산설비의 노후도는 48.4%이고 자동화율은 40% 미만이다(한국의류산업연합회, 1996). 의류산업의 자동화율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이다. 그리고 섬유사 및 직물류의 자동화율은 면방이 28.8%, 합섬이 45.0% 그리고 제직이 55.0%로서 의류보다 더욱 부진하다(김준현 외, 1993).

신기술 중에서도 신경쟁시대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기술과 컴퓨터기술이다.¹⁵⁾ 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지식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경쟁우위의 핵심결정요인이 된다(Fawcett *et al.*, 1996; Pinchot *et al.*, 1993). 제조기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정보취득 및 지식으로의 전환능력이 부창출의 1차 생산요소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유산업에서도 섬유사의 제조에서 섬유완제품의 기획단계를 거쳐 판매단계에 이르는 공급사슬관련 정보를 상호간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통합서비스 디지털망(integ-

15) 주로 선진국에서 새로운 기술은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의 방어차원에서 발전·응용되어 왔다. 70년대에는 규모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1980년대에는 신흥공업국으로부터 밀려드는 수입과 수요의 다양성 및 고급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1990년대에는 공급사슬관계의 재구축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 그때그때 사용되었다(자세한 것은 Byrne, 1995 참조).

rated service digital networks: ISDNs)이 그 요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기술을 이용한 섬유산업의 공급사슬이 재구축되지 않는다면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컴퓨터기술의 응용에서는 의류의 경우 평가(grading), 계측(marking), 재단(cutting of pattern) 그리고 디자인(fabric and garment design)에 사용되는 CAD/CAM이 대표적이다. 이제 컴퓨터의 응용은 부분적으로 공정별 전산화하는 단계에서 컴퓨터통합제조(computer-integrated manufacturing: CIM)단계로 이행되고 있다(Byrne, 1995; Mody and Wheeler, 1990). CIM은 CAD/CAM기술은 물론 경영정보시스템과 제조과정을 연계하여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니즈를 수시로 상호간에 검색하여 작업에 활용토록 하는 체제이다. 특히 기술적으로 의류산업은 신섬유의 공급 및 가용성, 옷감 그리고 마무리 방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보 및 컴퓨터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능의 경제적 체제는 신경쟁전략의 필요조건이다. 이는 신국제경쟁시대에서 요구하는 양, 비용 그리고 획일성과는 다른 개성, 속도 그리고 유연성을 지향하는 상품 기획 및 제조는 물론 판매방법의 혁신에 무게중심이 주어진 경쟁전략이다. 이러한 새로운 생산체제는 궁극적으로는 유연적 자동화(flexible automation)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¹⁶⁾ 유연적 자동화는 효율성의 제고에 따른 유연성의 둔화가 완만해지는 효율성과 유연성 간 배타적 관계의 창출에 기여한다. 이는 효율성이 제고될수록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효율성과 유연성 간 배타적 관계가 특성인 경직적 자동화(rigid automation)와 대비된다. 이를테면, 생산체제가 대량생산-대량소비방식의 전형인 경직적 자동화에서 유연적 자동화로 전환되면 효율성과 유연성 간 관계가 양 변수의 직각좌표에서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에서 오목한 형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경영차원에서는 수요의 개성화와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자중심과 상품의 다양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생산체제에 조응하는 제도적 장치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전략으로는 BPR,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축, 새로운 노동의 사회적

16) 유연적 자동화는 정보 및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자동화의 대명사로 이해되고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lean production), 유연적 제조체계(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그리고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등 보다 효율성이 제고되는 이상적인 형태이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자세한 것은 김환석 외, 1992, p.187; Boyer, 1988; Edquist and Jacobsson, 1988 참조).

관계, 그리고 공공기관 및 단체지원이 있다. 유연적 자동화는 기존 대량생산 방식과 잔존하고 있는 주문생산(craft production)방식을 대체하여 모든 산업과 모든 생산주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21세기 표준생산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따라서 신기술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기여는 생산주체, 그리고 공공기관 및 단체역할을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는 제도의 강구 여부에 달려 있다. 신기술의 응용은 곧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이다. 섬유산업의 노사관계는 저임금-저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전제(또는 시혜)형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투쟁(또는 경쟁)형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상호협력·생산형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협력·생산형 노동의 사회적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BPR이다. BPR은 기업경영의 혁신전략이다. 여건을 성과로 나타나게 하는 관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경쟁우위의 기초가 된다.¹⁷⁾ 따라서 경쟁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재설계되어야만 경쟁우위가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BPR은 기술 및 산업발전 추세에 맞추어 기업조직을 변혁시키는 외과수술식 경영접근방법이다(Cross *et al.*, 1994). 다시 말하면 주어진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 핵심역량(core competences)의 배양이 BPR의 목표이다.

이러한 기업단위의 경영혁신과 함께 필요한 전략이 사외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사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경비절감과 효율성 제고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전문성을 기초로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공급사슬의 재구축, 나아가 가상회사(virtual company)의 구현을 지향한다. 많은 연구(Rosenfeld, 1996; Kelly and Arora, 1996; McHugh *et al.*, 1995)에 의하면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축은 정보화시대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BPR만으로는 기술혁신에 따른 엄청난 비용부담, 프로소비자화(prosumerism), 그리고 수요변화 등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주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중 생산주체의 집단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효율적인 분업, 협업 그리고 지역적 밀집에 따른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독일 등의 일부 선진국에서 성숙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문산업지구(industrial

17) 실제적 BPR 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Droege and Fleischer(1995) 참조.

district)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¹⁸⁾ 이와 함께 기술수준과 그 동안 가격경쟁력의 원동력이었던 임금수준이 후발국보다 높으나 선진국보다는 크게 뒤져 있는 상황에서는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간 수평적 또는 수직적 통합을 도모하는 생산의 국제화도 국제경쟁력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¹⁹⁾

마지막 전략이 기업들의 생산적인 경쟁-협력관계가 형성되도록 생산과정을 지원하는 여건의 조성이다. 그 핵심 주체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이다. 우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단체는 무엇보다도 기업들 간에 신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축은 신뢰에 의존하고, 신뢰는 다시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다(Casson, 1995).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에 신뢰와 공유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산업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그 접근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희망하는 소기업군에게 일정 기간 지원하는 형태로 네트워크 브로커제를 사용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이 방법의 성패는 브로커의 선정 및 훈련 그리고 경쟁적 과정에 달려 있다. 물론 유인은 타기업도 경쟁과 협력의 원칙을 수용하고 내부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전문산업지구가 그 하나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재적 이용자와 함께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운영의 관리자로서, 그리고 기술개발의 선두주자와 후발자 간 가교(또는 촉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TC² (Textile/Clothing Technology Corporation), NATC(National Apparel Technology Center), 그리고 NTC(National Textile Center) 등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제외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

18) 전문산업지구는 수많은 동종 또는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체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생산과정에서 상호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특정 상품군을 생산하는 경제영역을 이룬다. 산

고 한국섬유연합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섬유업체가 주어진 인·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위한 학습조직의 체계화와 유관단체의 효과적 지원은 국제경쟁력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²⁰⁾

V. 結 論

한국 섬유산업은 고도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기능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섬유산업은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지만, 비교우위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대만 그리고 이탈리아는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거나 유지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교역도 WTO체제에 편입되어 2005년부터는 완전자유화된다. 따라서 한국 섬유산업은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서 탈성숙화될 것인지 또는 사양산업으로서 명맥만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 전자의 관점이 脫成熟命題이고, 이 명제와 궤를 같이하는 신국제경쟁전략론이 '산업조절모형'이다.

산업조절모형은 국민경제차원에서 요구되는 축적체제 및 조절양식, 산업차원에서 규정되는 기능의 경제적 체제 및 제도적 장치, 그리고 기업에게 적용되는 사회·경제적 원칙 간의 동태적 조화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의 경제적 체제와 이에 조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자는 유연적 자동화를 지향한다. 유연적 자동화는 수요의 다양·개성화와 양적 가변성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 주고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생산체제이다. 후자는 기업차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더자인,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축, 생산적 노사관계의 모색, 그리고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확립 등과 관련된 제반제도 및 관행을 포함한다. 특히 생산적 노사관계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신뢰에 기초하고, 신뢰는 사회·문화적 정체성(또는 산업문화)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 더욱이 산업조절모형의 구체적 실현형태가 일부 선진국에서 섬유산업을 비롯한 성숙산업에 확산되고 있는 전문산업지구라면 섬유산업은 외부

20) 섬유산업의 체계적인 OJT에 대해서는 Cannell(1997)를, 그리고 홍콩 섬유산업으로 하여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을 이룩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기여한 홍콩생산성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De Coster(1996) 각각 참조.

효과를 통해 지역발전,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산업조절모형은 성숙산업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역산업정책의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산업조절모형이 한국 섬유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제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및 국가발전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시대적 특수성이 그 원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산업조절모형이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전략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가 있다. 그 하나가 경제발전의 첩경이 첨단산업의 육성과 대기업의 유치라는 고정관념의 탈피이다. 국민경제 전체가 첨단산업의 메카가 될 수는 없다. 30여 년에 걸친 산업화과정에서 축적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고유한 지역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특화(또는 전략)산업이 결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능의 경제적 체제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시의성 및 전략성의 도모가 그 다른 하나이다. 기술변화와 수요의 구조적 변화로 열려진 국제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기회는 필요조건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지 않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생산주체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제반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경쟁전략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한다면,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만큼 커질 것이다.

마지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자금의 지원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의 강구이다. 섬유산업을 위한 자금조달과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지 않는다면, 모든 기업에게 열려 있는 신기술의 섬유산업에 대한 응용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1. 김영봉, 『섬유·전자공업의 특성과 수급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79.
2. 김정수·한진수, 『섬유류 교역자유화』, 산업연구원, 1990.
3. 김준현·이재덕·박준봉, 『섬유산업의 경쟁력 변화와 자동화 추진전략』, 산업연구원, 1993.

4. 김환석 · 홍성범 · 이영희, 『세계경제의 장기파동과 신기술의 국제확산: 장기파동이론의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2.
5.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의류산업 기술수준과 제고방안』, 1996.
6. 이규창,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및 노사정책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1994.
7. 이재덕, “섬유산업의 경쟁력”, 『주간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제1337호, 1997.
8. 日本銀行 統計局, 『外國經濟統計年報』, 1982, 1994.
9.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1970, 1980, 1993.
10. 한국무역협회, 『이탈리아 경쟁력, 그 실체 이렇다: 전통산업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1994.
11. 한국봉제과학연구소, 『'95/96년 한국 의류봉제산업의 현황/과제/동향』, 1996.
12. 한국산업은행, 『2000년대 한국산업의 구조변화와 장기발전전략』, 1995.
13. 한국섬유기술진흥원, 『한국 섬유제품의 수출시장 확대방안: 수출마케팅전략 개발을 중심으로』, 1995.
14.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 섬유산업의 물동분석』, 1975, 1985, 1995.
15.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산업연구원, 『2000년대 섬유산업의 중흥을 위한 정책방안: 섬유산업의 르네상스 정책』, 1994.
16.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1, 1980, 1990, 1995.
17. _____, 『기업경영분석』, 1970, 1980, 1990, 1995.
18. 한국의류산업연합회, 『의류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1996.
19. _____, 『'95 생산공장 실태조사』, 1995.
20. 홍문신 · 최장호, 『섬유공업의 구조와 정책』, 산업연구원, 1986.
21. Albernathy, W.J., K.B.Clark, and A.M.Kantrow, *Industrial Renaissance: Producing a Competitive Future for America*, 1985.
22. Ansal, H., *The Turkish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Technological Chang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ILO, 1991.
23. Bartoli, P. and D.Boulet, “Condition d'une Approche en terme de Régulation Sectorielle: le cas de sphère viticole”, *Cahiers d'Economie et de Sociologie Rurales*, No.17, 1990.
24. Boyer, R., *La Théorie de la Régulation: une analyse critique*, La Découverte, 1986.

25. _____, "Formalizing Growth Regimes", Giovani, D., Ch.Freeman, R.Nelson, G.Silverberg, and L.Soete,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ry*, Pinter Publishers, 1988, pp.608-630.
26. _____, "Les Problèmes de Régulation face aux Spécificités Sectorielles", *Cahiers d'Economie et de Sociologie Rurales*, No.17, 1990.
27. Byrne, Ch., "Impact of New Technology in the Clothing Industry: Outlook to 2000", *Textile Outlook International*, Textiles Intelligence Limited, March, 1995, pp.111-140.
28. Cannell, M.,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for Greater Competitiveness", *Textile Outlook International*, March, 1997, pp.98-111.
29. Casson, M.,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Culture*, Edward Elgar, 1995.
30. Chen, K.T., K.C.Jackson, and P.D.F.Kilduff, "Strategic Restructuring in the Taiwanese Textile Industr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Relocation", *The Textile Institute*, Vol.87, No.2, 1996, pp.117-134.
31. Cocker, J., "World Textile Trade and Clothing Consumption: Forecast to 2005" *Textile Outlook International*,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March, 1997, pp.35-76.

32. Corado, C., V.Benacek, and W.Caban, *Adjustment and Performance of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in the Czech Republic, Poland and Portugal*,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No.1260, 1995.
33. Cross, K.F., J.J.Feather, and R.L.Lynch, *Corporate Renaissance: The*

- tional Change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ector”, *Textile Outlook International*, Jan. 1995, pp.95-113.
37. Edqist, Ch. and S.Jacobsson, *Flexible Automation: The Global Diffusion of New Technology in the Engineering Industry*, Basil Blachwell, 1988.
 38. Fawcett, S.E., R.Calatone, and S.R.Smith,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Flexibiity on Global Reach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Vol.17, No.2, 1996, pp.167-196.
 39. Hayes, R.H. and G.P.Pisano, “Beyond World-class: The New Manufacturing Strategy”, in Pisano, G.P. and R.H.Hayes, eds., *Manufacturing Renaissance*, 1995.
 40. Huges, E.C. and A.D.Anderson, *The Spirit of Manufacturing Excellence: An Executive's Guide to the New Mind Set*, 1988.
 41.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6.
 42. ITMF, *International Production Cost Comparison*, 1996.
 43. Kelley, M.R. and A.Arora, “The Role of Institution-building in US Industrial Modernization Programs”, *Research Policy* 25, 1996, pp.265-279.
 44. Lane, C., “Industrial Change in Europe: The Pursuit of Flexible Specialization in Britain and West Germany”, *Work, Employment & Society*, Vol.2, No.2., 1988.
 45. McHugh, P., G.Merli, and W.A.Wheeler, *Beyond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Towards the Holonic Enterprise*, GB:John Wiley & Sons, 1995.
 46. Mody, A. and D.Wheeler, *Automation and World Competition: New Technologies, Industrial Location and Trade*, St. Martin's Press, 1990.
 47. OECD, *Textile and Clothing Industries: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ies in OECD Countries*, 1983.
 48. Park, Y.-I. and K.Anderson, *The Rise and Demise of Textiles and Clothing in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Japan*,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University of Adelaide, Seminar Paper

89-04, 1989.

49. Pinchot, G. and Pinchot, E., *The End of Bureaucracy and the Rise of the Intelligent Organization*, San Francisco, CA; Berett-Koehler, 1993.
50. Pine, B.T., *Mass Customization: The New Frontier Business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3.
51. Piore, M.J. and Ch.F.Sabel,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Basic Books, 1984.
52. Rosenfeld, S.A., "Does Cooperation Enhance Competitiveness?: Assessing the Impacts of Inter-firm Collaboration", *Research Policy* 25, 1996, pp.247-263.
53. Schmitz, H. and B.Musyck, "Industrial Districts in Europe: Policy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22, No.6, 1994, pp.889-910.
54. Singletary, E.P. and Jr.S.C.Winchester, "Beyond Mass Production: Analysis of the Emerging Manufacturing Transformation in the US Textile Industry", *The Textile Institute*, Vol.87, No.2, 1996, pp.97-116.
55. Stalk Jr.G., "Time: The Next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 1988, pp.41-51.
56.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arious issues.